

2021년 11월 7일 “성경의 큰 숲 보기(54) 디도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딤후 2:11-14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는 그리스 출신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서를 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 서신의 흐름 및 배경

- (1) 1:1-4 인사
- (2) 1:5-2:15 디도의 임무
- (3) 3 장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라

<그레데 배경>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과 폭력을 일삼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1:12). 또한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할례를 받고, 토라(창세기-신명기)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2] 디도의 임무

- (1) 지도자(장로) 임명(1:5-9)

가정 문화가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의식과 성품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흠잡을 데 없는 남편’ 일 뿐 아니라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알며,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성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폭행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등 그레데인과 대조되는 성품이 강조되었습니다.

- (2) 거짓 교사들 책망.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인다고 말합니다(1:10).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했습니다(1:16). 이에 맞서 디도는 건전한 교리에 맞는 말을 함으로써(2:1) 참된 것을 드러내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가 받은 구원의 뜻에 합당한 성품을 갖추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디도서에서는 성품에 관한 강조가 유독 많습니다(2:2 이하).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성품들을 강조할까요? 사람을 죄의 세력에서 끄집어내어 주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얻는 신분의 변화는 성품이 변화되기 전에 전적 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구원).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성품(가치관)의 변화(성화/성숙)와 선한 일이 요구되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2:11 –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2:12 – 이 은혜가 교육하고, 정욕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한다.

2:13 – 성도의 기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2:14 – 이 일의 기초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주셔서 죄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해 주심.

➔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레데 사회/문화 속에서 구속의 능력을 입증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거부하되, 문화적으로 겉으로는 그들과 비슷해 보여도,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과 목적을 알고 헌신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메시지입니다.

[3] 복음이 기대하는 새로운 사회

2 장 내용을 확장해갑시다. 본서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는, '선한 일'(2:14, 3:1, 3:8, 14)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뜻을 위해 실천하는 일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 뜻에 100% 순종하셨으므로 예수님 뜻은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간에 대한 아버지의 뜻은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섬기는) 것입니다(창 1:26, 28). 따라서 이 본분을 회복하여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사도는 디도에게 교회가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라고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3:4~8).

오늘 우리는 디도서를 보면서 무엇에 신앙의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이 빛나게 하고(2:10),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므로 힘을 얻어 먼저 성품과 가치관의 변화를 소망하며 애써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시니컬하고 비판적인데, 그들에게 삶의 동력은 비판하기 위한 자기 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삶과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맺음>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나를 알아가는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이러한 존재(being)가 되면 선한 일을 감당하는 헌신과 섬김의 일(doing)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봅시다>

1. 바울은 디도에게 교우들이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2. 나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무엇일까요?